

일회용 난좌 재사용을 높여져 질병차단에 속수무책

□ 취재/김동진 기자

1. 난좌의 탄생

채란업의 성장과 함께 난좌 산업도 더불어 발전하였다. 계란 생산량이 적고 계란의 가치가 높았던 '60년대 이전에는 짚으로 엮은 10개들이 계란이 대부분 유통되었으며 일부에서는 바구니에 담겨진 채로 판매되었다.

국내에 유입된 난좌는 한국 전쟁 이후 미군이 국내에 주둔하면서 식량차원에서 보급된 군수물자중 계란과 함께 난좌가 처음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국내에서는 '69년 제일성형제지 회사가 종이난좌의 대량생산을 꾀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난좌가 제작될 당시에는 자동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수동으로 판을 찍어

노천건조시키는 작업이 고작이었다.

당시 난좌는 계란취급시 발생하는 파란을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면서 농가와 상인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종이난좌보다 플라스틱 난좌의 가격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서 대부분의 농가에서 플라스틱 난좌를 사용하였으며 플라스틱 난좌는 세척하여 재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플라스틱 난좌의 선호도가 높았다. '93년 당시 플라스틱 난좌의 가격은 한장에 40~50원이었으며 종이난좌 가격은 70~80원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난좌회사들은 종이난좌 회사 2개소와 플라스틱 난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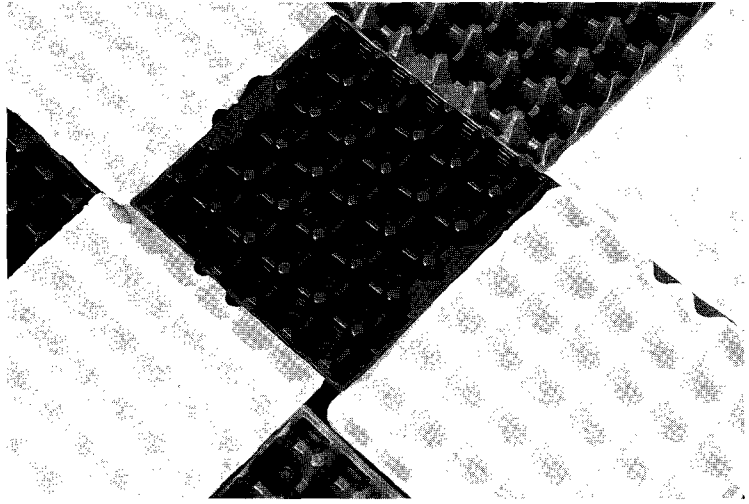
(PE,PP) 회사 5개소로 압축되어 있다. 국내 경기가 악화되기 이전에는 종이난좌 회사가 4개소에 달했으나 2개소는 경영악화로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2개소중 1개소는 화의신청에 들어간 실정으로 난좌업계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생산량은 H사의 경우 월 1,200만장, T사는 월 600만장을 생산하고 있어 전체 점유율의 73.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종이난좌의 점유비율이 높은 편이다.

2. 일회용 난좌보급 확산

'94년 9월 채란업계에서는 일대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채란농장에서는 가금티푸스 등 각종 질병이 성행하였고 질병전파의 한 요인으로 재 사용되어지는 난

좌가 표적이 되면서 '일회용 난좌사용 운동'이 협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해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종이난좌회사인 H사가 등장하였고 자동화시스템으로 생산비를 낮춰 기존의 플라스틱 난좌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장당 25원)에 농가에 공급하면서 큰 호응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일부 상인들은 난좌의 부피가 크고 규격이 계란운반용차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회용 종이난좌사용을 기피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인 '95년 4월 수도권상인연합회측에서 모든 상인들이 농장에 난좌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것과 전염병의 주범인 난좌를 일회용으로 사용할것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면서 일회용 종이난좌의 정착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당시 일회용난좌의 정착을 위해서 H난좌회사는 난좌가격을 협회와 상의하여 인상키로 협의를 하고 폐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건실한 경영을 이끌어갔다. 그러나 재료비 및 제반 물가가 상승하면서 H사는 '95년 5월 생산비 상승의 이유를 들어 난좌가격을 35원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



△ 현재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종이 및 플라스틱 난좌

다. 생산자들은 시행한지 1년도 안되어 난좌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높았으나 여러차례에 걸친 난좌회사측의 어려운 사정이 생산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3. 난좌가격 인상 조치

'95년 이후부터 대량설비를 갖춘 종이난좌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서로간의 경쟁으로 기존의 H사와 협회와의 가격조정 협의가 파기되었고 이후 '96년 1월에는 42원으로 12월에는 50원(왕란좌는 65원)으로 난좌가격이 인상되었다. 이 가격은 지난 '97년 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 유지되어 왔으나

종이값 인상 유류비 인상 등으로 난좌회사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서 몇개사가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를 맞이하였고 난좌가격을 90원(왕란좌는 120원)까지 인상키로 하였다.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란의 경우 보통 70원에서 90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상승의 주 원인은 종이 가격이 오른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난좌를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원료(가스 및 기름)가격이 배 이상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원인은 기계를 도입하면서 사용한 리스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78년 종이난좌가격(30개 들이)을 보면 15원정도로 유통이 되었는데 당시 산지 계란가격이 개당 26원 정도이었던 것을 보면 계란 1개당 난좌가 차지하는 비율은 2%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중은 점점 늘어나 지난해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는 일반란좌가 50원이고 왕란좌가 65원에 거래될 당시에는 개당 1.8원으로 2.9%로 높아졌고, 최근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90원(왕란좌 120원)으로 계산할 경우 개당 3.2원으로 3.8%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시간이 흘러가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플라스틱 난좌의 유통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됨에 따라 오는 2001년까지 합성수지 포장재(양계의 경우 플라스틱 난좌)를 전체유통량

의 60%이하까지 감량을 하여, 대부분 매립처리하고 있는 합성수지의 재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94년부터 종이 난좌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난좌는 정부의 시행방침에 충분히 부합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30%정도의 플라스틱 난좌가 재활용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쓰레기로 폐기되거나 농장에 다시 유입되어 재사용되어지면서 질병전파의 위험을 높여주고 있다. 유통되고 있는 모든 플라스틱 난좌의 조성은 PE(폴리에틸렌) 성분이 90~95%, PP(폴리프로필렌) 성분이 5~10%정도로 모두 식품용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사실 폐합성수지의 재활용 설비제작업체로 환경표지사용인증을 획득한 S사의 경우 폐난좌를 가져올 경우 장당 8원을 되돌려 주고 있는데도 일부 대형 농장에서 사용한 일부만이 회수(회수율 8%)

될 뿐 상인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난좌는 거의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주었다.

D플라스틱 난좌회사의 경우도 수거율이 1%도 안된다는 답변을 주어 전체 플라스틱 회사들이 수거하는 난좌의 비율은 5%선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플라스틱 난좌는 상인을 통해 대부분 판매점이나 식당 등에 전달되고 시장 등을 통해 판으로 구입하는 주부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진다. 식당이나 판매장에 유통된 플라스틱 난좌의 경우 대부분 상인들에 의해 수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는 버려지거나 고물상인들에 의해 처리되어지고 있는데 주부들이 구입한 난좌의 일부는 재활용품으로 구분되어지는 것 이외에는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수거된 난좌들이 세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인들에 의해 다시 농장으로 전달되어 여러번 재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물상인들에게 수거된 난좌도 장당 10원(과거에는 30~40원) 정도에 상인들에게 되팔아지고 있어 유통되는 플라스틱난좌의 대부분이 농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연도별 종이난좌의 가격 및 생산비 비교

구분	'78년	'97년	'98년 현재
장당(30개 들이) 가격	15원	50원(65원)	90원(120원)
계란 생산비/개당	26원	60원	84원
계란 생산비중 난좌가격비율	2%(0.5원/개당)	2.9%(2.4원/개당)	3.8%(3.2원/개당)

※ 현재가격은 가장 높은 가격 적용
()는 왕란좌 가격

상인들은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재사용의 합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수거한 난좌를 농장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란 실거래 가격에서 난좌가격을 제하고 있기 때문에 난좌가격 만큼의 차액을 상인들이 갈취하는 꼴이 된다. 이는 농가나 상인들이 질병전파에 대해 아직도 소홀히 생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종이난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상태가 좋은 난좌는 최소한 3번씩 사용하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농가의 난좌사용 추이

현재 농가에서의 난좌구입은 주문을 할 경우 난좌회사 측에서 배달을 해주는 방법과 상인들이 난좌를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역의 계우회단체들은 회원들의 주문을 일괄적으로 받아 연계약 형식으로 구입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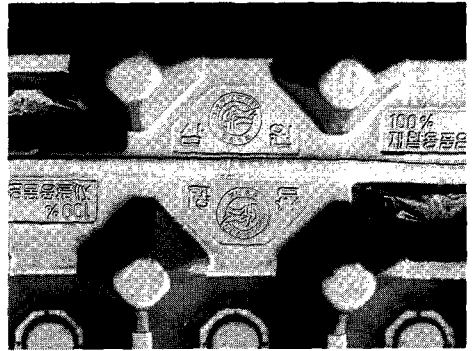
최근 종이난좌 가격의 상승으로 일부에서는 종이난좌를 기피하고 플라스틱 난좌사용을 모색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움직임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환경표시 사용 인증을 획득한 S사가 폐합성수지 재활용 설비업체로 지정되면서 PE난좌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PE난좌를 제작하면서 월 200만장을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의 경우 대기업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활용해 난좌를 제작하고 있는데 원가절감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난좌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PE난좌의 생산비는 59원으로 납품가격은 일반란의 경우 65원 왕란좌의 경우는 90원에 유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플라스틱 난좌업체는 50원에도 거래하고 있어 플라스틱 가격은 당분간 상승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난좌가격에 의해 유통이 좌지우지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난좌는 가격보다 위생과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볼때 종이난좌에 담겨진 계란이 플라스틱 난좌에 담겨진 계란보다 보관기간이 길다고 한다. 그러



△ 최근 종이난좌가격이 인상되면서 난좌의 재활용 차원에서 환경마크가 새겨진 난좌(PE)가 등장, 사육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 1회용 난좌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나 같은 조건에서 보관을 했을 경우 신선도가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종이 난좌가 플라스틱 난좌보다 통풍이 잘되어 유리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플라스틱 난좌도 세척과정을 철저히 지켜 재사용할 경우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세척 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세척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시행이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상인들에 의해 수거된 난좌는 전량 난좌생산 업체에 재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가에서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난좌의 농장유입을 철저히 막아내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